

쿠팡, 오늘부터 일주일간 캐주얼 브랜드 등 빅세일

쿠팡은 14일부터 20일까지 '캐주얼&스포츠 브랜드 빅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6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3만여 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을 시즌을 맞아 러닝, 등산, 트레이닝 등에 필요한 스포츠 의류와 신발, 잡화부터 겨울 시즌까지 다양한 캐주얼 의류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뉴발란스 퍼포먼스 집백, 아디다스 기모 크루넥 맨투맨, LAP 여성용 LA 프로젝트 맨투맨 등이 있다.

인기 브랜드 푸마, 네과, 블랙야크, 언더아머는 전 상품을 할인한다. 스프라 유틸리티 오버사이즈 우븐 재킷 스니퍼 플랫 그래픽 롱 슬리브 면 티셔츠 스니퍼야크 M코트 재킷 오버핏 바람막이 스니퍼야크 UA 라이벌 플리스 후디 등을 특가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인기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할인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다. 키르시, 쥬시쥬디 등 여성의를 비롯해, 남성 의류·신발·가방·잡화 등 인기 상품 300여 개를 만나볼 수 있다. 폴햄, 폴햄키즈, 프로젝트엠 브랜드의 신규 입점을 기념하는 브랜드워크도 같은 기간 진행한다.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며, 쿠팡 와우회원엔 추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민서 기자 msjano@viva100.com

영업 돌입 '재거스' 1호점... 막오른 '버거 대전'



“씨 없는 청도반시 맛보세요”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 하나로유통은 ‘청도 반시’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반시는 경북 청도에서만 생산되는 씨가 없는 감이다. 일반적인 껍질감의 길쭉한 모양의 통시와 달리 그 생김 모양이 재반처럼 납작하다고 해 반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농협유통 제공

현대도 가세... 유통 대기업 '4파전'

평택 미군기지에 수제버거 브랜드 론칭 롯데·신세계·한화 이어 후발주자 합류 단품 1만3000원대 합리적 가격 내세워 국내 포화 버거시장 안정적 정착 관심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업 현대그린푸드가 미국서 버거 브랜드 '재거스(JAGGERS)'를 들여오면서 국내 수제버거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로써 롯데와 신세계,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국내 유통 대기업 4개사가 모두 버거사업에 뛰어 들게 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달 30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USAG 험프리스)에 미국 캐주얼 수제버거 브랜드 '재거스' 글로벌 1호점을 오픈했다. 165㎡(약 50평) 규모로 비프버거, 치킨버거 등 버거 14종을 비롯해 사이드·음료 22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재거스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매장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그린푸드는 1호 매장인 평택 험프리스점에서 재거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핀 후 국내 추가적인 매장 오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가 미군기지를 1호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소비자 반응을 살펴 보기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삼기 위해서다.

실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19년 평택 미군기지에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내·외국인 반응을 반영해 현재 총 8개 매장으로 확대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버거 사업에 뛰어 들면서 국내 4대 유통기업의 버거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롯데GRS를 통해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계그룹은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를,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앤지코리아는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재거스가 롯데리아나 노브랜드버거보다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 새롭게 문을 연 '재거스 험프리스점' 전경. 현대그린푸드 제공

파이브가이즈와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79년 국내 시장에 론칭해 약 13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리아나 2019 론칭해 가성비로 앞세워 급격히 규모를 키워 25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노브랜드버거와는 규모와 가격, 타겟 고객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 서울 강남에 1호점을 오픈해 현재까지 총 5개 점포가 운영 중인 파이브가이즈는 수제 버거라는 콘셉트이나, 규모면에서 재거스가 겨워 불만이다.

재거스는 다른 수제버거 브랜드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대표 메뉴인 '크레이지 굿 치즈버거'는 한화 약 1만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단품 제품에 감자튀김과 탄산음료까지 주문하면 5300원이 추가돼 세트가격이 1만8000원 정도로, 파이브가이즈 세트 구성이 3만3000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다만 재거스가 국내 버거 시장에서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내에는 SPC그룹의 '웨이크백'과 bhc그룹의 '슈퍼퍼퍼', 한화 갤러리아의 '파이브가이즈', '고든램지 버거' 등 해외 유명 수제버거 브랜드가 진출해 경쟁이 치열한 만큼 후발주자인 재거스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재거스까지 합류하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버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POCARI SWEAT
LOW SODIUM DRINK
120 kcal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QR코드를 찍고 광고를 확인하세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에서 열린 CJ대한통운-한국해양진흥공사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에서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 김정환 주시카고대한국총영사관 총영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美 어디든 1~2일내 배송... 'K-물류시대' 연다

CJ대한통운, 엘우드 물류센터 착공

부지 총 29.5만㎡...2026년 운영 목표 도로·철도교통 기반 물류경쟁력 제고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Elwood)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CEO, 김정환 주시카고대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정성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5평)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온 제품을 대상으로 보관, 재고관리, 출고 등 물류 전과정의 일괄 수행되며 실시간 창고관리시스템과 보관 제품에 특화된 다양한 자동화 설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과 한국해양공사는 지난해 6월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미국법인 이 시카고, 뉴욕 등 물류·유통 중심지에 보

유한 총 36만㎡ 규모 3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센터 건설 및 운영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할 예정이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미국 최대 화물철도 기업 BNSF, 유니온퍼시픽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육상, 철도와 연계 시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다. 넓은 배송량과 함께 CJ대한통운의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더해져 향후 이 센터를 이용하는 화주들은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CJ대한통운은 미국을 핵심 국가로 설정하고 활발하게 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약 2만5000㎡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올해 안 운영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으며, 캔자스주 뉴센추리에도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약 2만7000㎡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케빈 콜먼(Kevin Coleman)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CEO는 "엘우드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추진 중인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첨단화·자동화 기반의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영토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sy1216@viva100.com